

투명경영 실현으로 신제품 개발 주력

철저한 품질관리로 ISO9001 획득



◀ 한창이
삼흥산업(주) 대표이사

삼흥산업(주)의 한창이 회장은 쌍용제지에 입사해 14년간 기술자로 근무하며 탄탄한 노하우를 쌓은 후 지금의 삼흥산업을 설립하게 됐다.

“제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쌍용제지 계열사인 쌍용스커트제지에서 공장장으로 있을 당시 쌍용제지와 쌍용스커트제지의 합병으로 퇴사하게 되었으며 쌍용제지를 거래선으로 확보한 후 가공기 1대와 5명 내외의 직원으로 삼흥산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포장이란 생소한 분야인데다 23년간 줄곧 직장생활만 해왔던 터라 한 회장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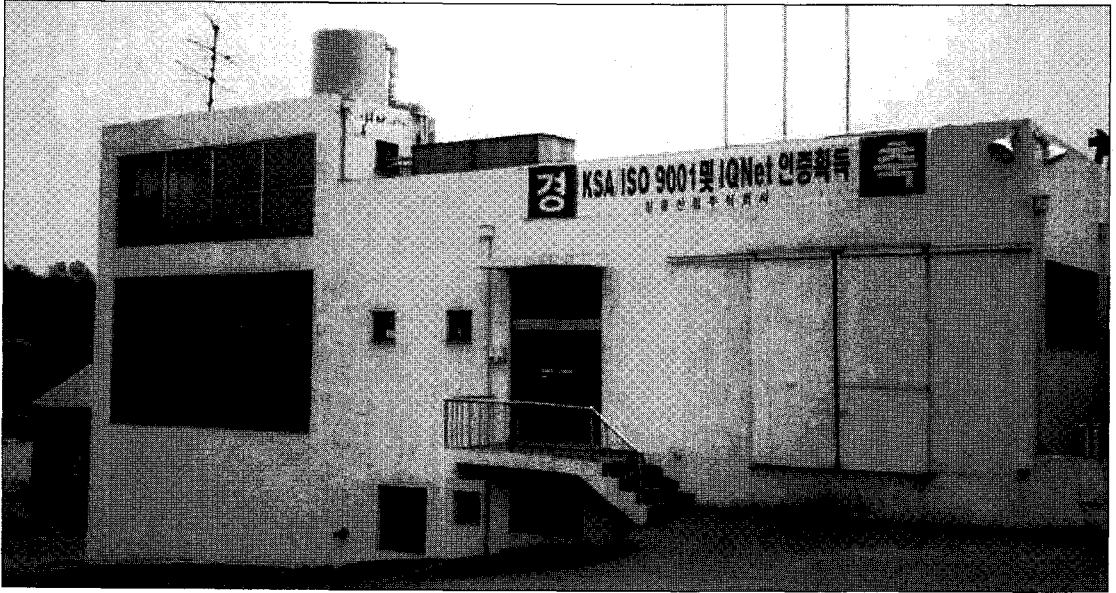
“회사 설립 후 약 3년 동안 경험 및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간 직장생활만을 해 왔던 터라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 부족으로 너무나도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주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설립 초기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며 초기의 고충을 털어놨다.

한국 속담 중에 “땅은 비온 뒤 더 단단하게 굳는다”라는 말이 있다. 삼흥산업은 이렇게 어려움 극복을 계기로 포장용 통한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삼흥산업은 P&G 쌍용제지라는 탄탄한 거래선을 바탕으로 고품질 자동포장용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흥의 모든 생산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마크를 획득하고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ISO9001 인증 획득

삼흥산업은 유아용기저귀, 여성용생리대, 성인용기저귀, 화장지 등의 외포장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자동 포장용



▲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흥산업(주) 공장 전경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주는 디자인 인쇄성, 다양한 용도의 필름생산, 제품의 광택성과 촉감성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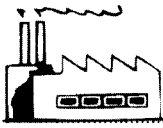
삼흥산업의 한창이 회장은 “투자 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표현하는 외포장 디자인은 소비자의 시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쇄 기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삼흥의 인쇄에 대한 투자는 각별하다.

한 회장은 “현재 17-Color Gravure Printing machine을 설치해 이달 중순경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7도 인쇄가 가능하므로 제품의 색상표현이 탁월해 질 것이며 제품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 하나, 삼흥산업은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특성의 원료를 배합해 고객 욕구에 부합되는 포장재 원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료 제조사의 연구팀 및 국내 전문 연구소와 협력해 원단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지난 1996년에는 210 μ m폴리에틸렌 필름을 개발해 상품 운반용 손잡이를 개발하여 특허청으로 부터 특허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포장 디자인에 있어서 고객의 신상품 개발에 따른 포장재 기획, 디자인, 생산을 대행하고 있다.

삼흥산업은 인쇄부, 가공부, 품질 관리부의 3개 부서로 나뉘어 모두 25명의 임직원이 각자의 맡은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02년 6월에는 ISO9001 품질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삼흥인의 자부심을 더해 가고 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삼흥은 자사 시험실을 두고 인장강도



▲ ISO9001 인증 획득 후 삼흥산업 임직원의 기념촬영

기, 파열강도기, COF슬립(미끄럼)테스트기, 두께 측정기 등 물성 실험기를 갖추어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동종 업계와 차별화 하고 있다.

한 회장은 “신제품 개발이 없는 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실험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제조업이라 하면 3D업종이라는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 세대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회사에 맞는 우수인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삼흥은 전 직원이 초대졸 이상의 전문 인력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 그들의 노하우와 전문 기술이 회사 발전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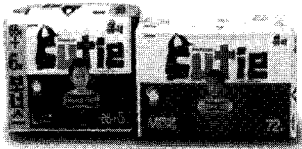
“장기근속자들은 대부분 고령들이 많아 정년퇴

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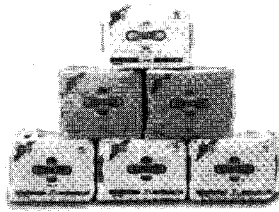
그러나 장기근속자들은 비록 몸은 젊은 사람과 같진 않지만 그 분야에서 만큼은 전문인으로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고급인력 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한 회장은 정년제 폐지론을 강조했다.

얼마 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모집·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되고,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다.

한 회장 또한 어느 기업이라면 정년퇴임 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회장은 기업 발전에 있어서 구성원의 연령이 아닌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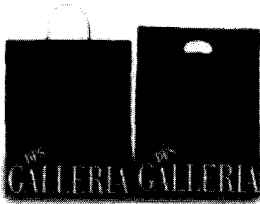
자동 포장용 기저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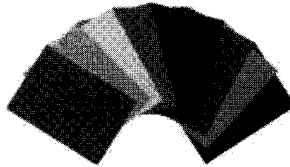
자동 포장용 생리대



자동 포장용 화장지



고급 쇼핑백



다양한 색상



고급 쇼핑백

▲ 삼흥산업의 생산 제품

서울에서 오산까지 매일같이 정시에 출·퇴근을 하며 기술고문역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 투명 경영 실현

현재 PE(Polyethylene) Film 및 그라비아(gravure) 업계는 기술 개발보다 대량 생산에 주안을 두고 있어 과다 생산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흥산업이 거듭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품질,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고객 욕구를 실현코자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아낌없는 투자를 해 나갈 것이며 전 사원 주주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라는 한 회장은 금년부터 총괄이사를 두어 투명 경영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내실을 튼튼히 한 후에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에 삼흥은 일본과 교류를 통해 PE Film의 고급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코자 장기간에 걸친 생산 및 시험으로 용도에 따른 Film의 물성 데이터(Data)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삼흥은 고객이 제품을 접했을 때 그 특성 및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외포장 필름의 시각적, 촉감성 또한 뛰어나야 한다며 이에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 “미래지향적 투명 경영”, “깨끗한 미래 환경”을 실현코자 기술 개발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오직 한 길만을 추구해온 한 회장의 경영 이념과 전 임직원의 화합을 바탕으로 삼흥의 밝은 미래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해진 기자